

4 장_충남서부장애인복지관

화요일 오후, 작은 희망을 품다

화요일 오후

화요일은 우리 복지관이 유난히 분주한 날입니다. 선생님들은 아침부터 강당에 의자와 책상들을 나르고, 피아노의 먼지도 털어내고 간식도 마련해야 합니다. 서울에서 찾아오는 예쁜 음악 선생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오늘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재미있는 음악수업이 있는 날이거든요. 참, 부모님들께 전화도 드려야 해요. 이 음악수업은 아주 특별하기 때문에 아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바쁘게 뛰어다니는 동안 아이들은 그들대로 바쁘기만 합니다. 해냄교실의 수업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정우는 마당으로 뛰어내려와 1 층 강당 주변을 배회하는가 하면, 어린왕자를 기다리는 장미처럼 수줍게 창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는 예진이 같은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던 선생님들을 태운 승용차가 복지관 마당에 도착해도 아이들은 먼저 달려가 안길 줄도 모릅니다. “선생님.” 하고 반갑게 외쳐 부르는 법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슬금슬금 도망치는 녀석들도 있답니다.

하지만 오늘도 예쁜 핸드벨을 가득 안고 달려온 음악선생님들은 아이들 맘속을 훤히 알고 있다는 듯 먼저 인사를 건네고 손을 잡아줍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이 얼마나 이 화요일 오후를 기다렸는지 알고 계시거든요.

처음엔 낯선 선생님과 눈도 맞추지 않았고요, 자리에 얌전히 앉아있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죠. 소리를 지르거나 자리에 누워 버리거나 때를 쓰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음악수업에 함께 참여하는 부모님과 할머니들은 그런 아이들에게 이력이 난 듯 처음엔 별로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눈치였고 복지관 선생님들도 막막한 표정들이셨지만, 음악선생님께서는 보호자의 인내와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업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부모님들을 열심히 격려해 주셨죠. 그런 선생님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 선생님들은 작은 희망을 품게 됐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름다운 한 곡의 노래가 흐르는 동안 집중할 수 있는 인내심이 생겼으면, 그래서 아름다운 한 곡의 노래를 온전히 다 느낄 수만 있다면……’

‘사랑의 멜로디’가 시작되기까지

‘사랑의 멜로디’라는 프로그램은 복지관의 신참내기 선생님인 문경희 선생님의 제안에서 출발했습니다.

발달장애와 정서장애를 겪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인지 고민하던 중에 문 선생님은 대학시절부터 관심이 있었다면서 음악프로그램을 제시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 중 누구도 음악 프로그램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선생님을 초빙해야 한다는

어려운 현실과 과연 아이들에게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지, 온통 걱정뿐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을 과감히 도입해보자는 선생님들의 의견이 압도적이었고, 대학시절부터 관심을 갖고 모아놓은 자료를 재구성해 총 15 회차에 이르는 섹션별 교육계획서까지 꼼꼼히 작성해 온 문경희 선생님의 준비 덕분에 우리는 음악치유 프로그램 ‘사랑의 멜로디’를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반가워요!

이제 막 초여름의 풀꽃향기가 피어나던 무렵 양손 가득 에그셰이크와 톤차임, 핸드벨을 든 세분의 천사 같은 선생님들이 복지관을 찾아왔습니다. 복지관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하는 가운데 드디어 첫 번째 수업이 시작됐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아이들을 가만히 앉혀놓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다행히 가만히 앉아있는 아이들은 처음 보는 악기들을 쳐다볼 뿐 멜로디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음악선생님들은 이런 상황쯤은 익숙하다는 듯 서두르지 않고 아이들의 손을 잡으며 살며시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한 번, 두 번, 세 번, 아이들이 선생님과 눈을 맞추는 횟수가 늘어가기 시작했죠.

한 달이 지나 4 주차 수업이 진행되던 날, 아이들은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맞춤이 전혀 안 되었던 아이들이 악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때를 쓰기만 하던 완근이가 선생님의 관심을 바라는가 하면, 한 소절도 따라 부르지 못했던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음악 속에서

눈맞춤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눈맞춤은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누가 연주할까?

여름이 깊어 가면서 아이들은 점점 더 음악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에그셰이크와 핸드벨을 만지고 싶어하는 아이들에게 손바닥으로 악기를 지탱하며 악기를 느끼게 해주고, 악기의 떨림을 함께 느끼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노래에 맞춰 어떤 악기들을 연주해야 하는지를 배우며 어떤 순간에 에그셰이크를 흔들어야 하는지도 깨우치기 시작했죠.

모든 순간이 놀라움과 즐거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함께 하는 부모님들 역시 함박웃음 속에서 아이들의 놀라운 변화를 지켜볼 수 있었죠.

같이 연주해!

뜨거운 여름이 되자 아이들은 점점 더 음악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동안 자신의 연주 차례를 기다릴 줄도 알게 됐고요. 다른 친구의 연주를 귀 기울여 들어줄 줄도 알게 됐죠. 물론 박수를 치며 친구들을 격려해 주기도 하구요. 즐거운 감정을 표현할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떼를 쓰거나 소리를 지르는 행동은 이제 찾아볼 수 없답니다. 친구들과 같이 연주하는 걸 아주 좋아하게 됐죠.

우리 모두 함께

아쉽게도 오늘이 마지막 수업입니다. 선생님들은 오늘따라 더 많은 악기를 차에서 내려놓습니다. 우드블럭, 톤차임, 템플블럭, 심벌즈, 리듬스틱 그리고

색 스카프까지. 아이들의 마지막 수업을 더 멋지게 꾸며주고 싶어 욕심을 부리셨나 봅니다.

오늘 아이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연주를 친구들에게 들려줍니다. 음악에 맞춰 각자의 악기를 연주하는 합주 솜씨도 선보이네요. 한성이와 정우와 규리 그리고 완근이는 ‘나의 노래’를 부르며 뽐내기도 합니다. 아이들도 오늘이 마지막이란 걸 아는지 참 열심히합니다. 그 동안 아이들과 함께 수업에 참여했던 부모님들과 톤차임 연주를 하는 행복한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수업을 지켜보는 부모님들과 복지관의 우리 선생님들은 못내 아쉽기만 합니다. 음악수업을 받기 위해 서울을 오르내릴 수도 없는 이 아이들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다시 만들어줘야 한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10 월의 어느 멋진 날

그 동안의 피곤한 여정을 기쁨과 보람이었다고 이야기하는 원혜경 선생님과 송인령, 서승미 선생님은 어젯밤 아이들을 위해 아름다운 노랫말을 만들었습니다. ‘10 월의 어느 멋진 날’ 이라는 아름다운 멜로디에 아이들을 향한 소망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노랫말이 가슴을 뭉클하게 하네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모두는 아마 같은 기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음악 속에서 처음으로 눈을 맞추고, 자신의 노래를 갖게 된 우리 아이들의 행복이 오늘 이 순간에서 멈추지 않았으면……’ 하고 간절한 마음을 담은 기도를 말이죠.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한성이 웃음소리 항상 밝아 좋고요

이젠 노래하며 웃어봐요

정우 관심 없는 척해도 악기 연주 잘 하죠

이젠 자리에도 앉아 보세요

규리 늦었지만 선생님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죠

완근이 눈맞추며 악기 연주했고요

선생님과 다른 사람 모두 함께해요

다른 아이들의 모범 꽃다비 고마워요

항상 열심히 하는 종찬이 고마워요

미소로 집중 하는 민석이 멋진 모습이죠

음악과 함께하는 주호도 멋져요

때론 다른 생각해도 홍범이 노래 잘 부르죠

성공하는 권오 끝까지 성공해요

소리에 집중하는 두레 눈맞춰줘 고마워요

항상 미소 짓는 은재 계속 웃기를

눕는걸 좋아하는 동오 그리고 예진이

일어나 활동해 고마워요

기억 잘하는 진주, 미소가 멋진 유범이

항상 지금과 같은 모습이길

더욱 더 발전하는 우리 친구들이길

충남 보령 서부장애인복지관에서 진행된 <발달장애아동 정서지원을 위한 음악치유프로그램 '사랑의 멜로디'>